다이쇼인 절: 미로쿠노마(관음당 내부)

다이쇼인 절의 관음당에 있는 미로쿠노마(미륵의 방이라는 뜻)는 미륵보살이 안치되어 있는 방입니다. 불교에서 미륵보살이란, 수천 년이 지난 미래에 석가모니의 후계자로서 이 땅에 나타나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미륵보살을 숭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이쇼인 절에 미로쿠노마가 마련된 이유는 다이쇼인 절과 티베트 불교와의 관계에서 연유합니다. 다이쇼인 절이 속해 있는 진언종은 티베트 불교와 공통된 교리의 요소와 역사적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두 종파 모두 밀교(비밀 불교)의 전통에서 파생된 종교로, 오늘날까지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호적인 두 종파의 관계를 증명하듯 2006 년에는 다이쇼인 절의 창건 1,200 주년을 축하하고자 달라이 라마 법왕이 다이쇼인 절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달라이 라마 법왕이 봉헌한 금미륵보살상은 현재 미로쿠노마에 안치되어 있으며, 티베트의 화려한 천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금미륵보살상 앞에는 밀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념을 선명한 색채로 표현한 모래 만다라가 있습니다. 모래 만다라는 2006 년에 달라이 라마 법왕을 수행한 승려가 그린 만다라입니다.

미로쿠노마는 단순히 중요한 인물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월 8 일이 되면, 일본에 거주하는 티베트 불교의 승려가 다이쇼인 절을 방문하여 미로쿠노마에서 의식을 치릅니다.